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11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삿포로에는 낮에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날씨가 포근했지만, 둘째 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11월 11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겨울은 기온이 높은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춥게 느껴지는 계절인 듯합니다. 12월 초에는 일본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홋카이도 리쿠베츠초(陸別町)에서 20년 만에 육안으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의 풍요로운 가을



'과일의 고장'이라 불리는 요이치초(余市町)를 방문하여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았습니다. 체험 시간 동안 사과, 복숭아, 배, 포도, 푸룬 등 다양한 과일들을 수확하며 마음껏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이치초는 사과가 특히 유명한 지역이지만, 와인 양조에 사용되는 포도 또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어 '와인 특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닛카 위스키 증류소가 위치한 곳이자 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모리 마모루(毛利 衛)의 고향, 예로부터 청어잡이가 성행하여 홋카이도의 민요(노동요인 '소란부시'가 유래한 지역)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토카치 지방에 위치한 신토쿠초(新得町)는 전국 유수의 메밀 생산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9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햇메밀로 만든 메밀 국수를 맛볼 수 있는 '신토쿠 신소바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축제 규모가 축소된 관계로, 메밀 국수 7,000그릇을 단 두 시간 반 동안만 한정 판매하였습니다.

신토쿠역에는 삿포로와 오비히로, 구시로를 잇는 특급열차가 정차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장 시간 전부터 축제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두 시간 가량의 기다림 끝에 먹어본 메밀 국수는 더할 나위 없이 맛있었습니다.

군고구마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겨울철 간식 중 하나이지만, 일본에서는 가을이 제철인 먹거리인 듯합니다.

단풍 명소로 유명한 삿포로시 나카지마 공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야외에서 군고구마와 고구마 디저트들을 판매하는 이벤트인 '삿포로 야키이모 테라스'가 개최되었습니다.

한 시간 넘도록 줄을 서서 사먹어야 하는 군고구마의 인기도 새삼 놀라웠지만, 판매 중인 메뉴들 중에는 고구마 위에 김치와 크림 치즈를 올려서 '한국 요리'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구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호박고구마파입니다.

주일 한국대사 홋카이도청 방문



12월 7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와 배병수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가 홋카이도청을 방문하여 스즈키 나옴이치 홋카이도지사를 예방했습니다.

스즈키 지사는 "한국과 홋카이도는 우호관계를 맺고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매우 가까운 관계", "일본과 한국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진 이웃 나라이자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야기 하며 "앞으로도 한층 더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다양한 교류가 정상화 되어 한일 인적 교류 천만 명 시대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한국 우호지역들과 홋카이도의 교류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은?

가을에 접어들면 일본에서는 다양한 '올해의 순위'들이 발표됩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연말이 부쩍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브랜드 종합 연구소에서 매년 10월 중순 경 발표하는 '도도부현 매력도 랭킹 조사' 결과는 이목이 집중되는 뉴스들 중 하나입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지역 브랜드 조사'는 일본 국내 1,000개 기초자치단체와 47개 도도부현의 지역 명칭에 대해 인지도와 매력도, 이미지 등을 평가하는 소비자 조사이며, 홋카이도는 올해도 1위를 차지하여 '15년 연속 가장 매력적인 도도부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삿포로시도 3년 연속 '매력적인 시정촌 1위' 자리를 지켰으며, 홋카이도 내에서는 올해도 하코다테시, 오타루시가 10위 안에 랭크인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에서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삿포로 (시내 풍경)



▲하코다테 (고료카쿠 설경)



▲오타루 (운하 야경)

홋카이도 (삿포로) 살아보니 이런 점이 좋아요!

1. 심신이 힐링되는 자연 환경과 맑은 공기, 푸른 하늘
2. 낮은 인구 밀도와 여백이 많은 풍경
3.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와 즐길 거리로 활기찬 분위기
4. 맛있는 먹거리! 풍부하고도 신선한 식자재들
5. 시내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많음

의외로 이런 면도 있답니다...!

1. 일 년의 절반이 겨울! 치위도 치위도 끝이 없는 눈
2.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폐지되어 가는 버스 노선
3. 1,500엔이나 하는 택배비 (배송불가 지역인 경우도...)
4. 시내에도 이따금씩 출몰하는 불곰과 사슴, 여우
5. 점점 길어지는 무더운 여름과 저조한 냉방시설 보급률

홋카이도의 크리스마스 시즌



질은 밤이 한층 더 아름답게 빛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11월 말부터는 삿포로 시내 곳곳에서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이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삿포로에는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을 함께 보러 간 연인은 헤어진다'는 속설이 존재합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1월부터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마케팅과 다양한 이벤트들 덕분에 어디서든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KFC 치킨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기간은 1년 중 가장 매출이 높은 '대목' 시즌이라고 합니다.

하코다테에서도 포근한 겨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베이 에어리어의 아카렌가 창고군 부근에서는 '하코다테 크리스마스 판타지' 행사가 열리며, 약 15만 개의 전구들로 불을 밝힌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려 7층 건물 높이라고 합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

